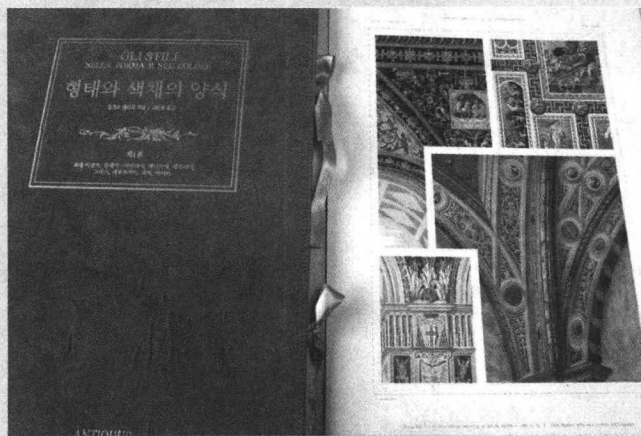


미술연구사 · 도판집 《형태와 색채의 양식》

시대와 문명 아우르는 ‘예술과 실용의 만남’ 디자인 원형 복원, ‘미술연구 발자취’ 담아



《형태와 색채의 양식》(총 4권)
줄리오 페라리 지음 | 고종희 옮김 | 타라 안티쿠스 | 각권 값 15만원 (한질 60만원)

‘우 리 삶의 원형을 찾아서’. 이제 일년을 갓 넘긴 인문 교양지 <안티쿠스>가 내세우는 모토다. <안티쿠스>는 현재의 거울이 되는 동서양 고대 문명과 한국의 고전을 통해 다양한 사유의 스펙트럼을 제공하며, 예술과 철학, 역사와 문학, 풍속과 유적 등에 스며 있는 삶의 지혜와 정신을 소개하는 잡지이다. <안티쿠스>를 만드는 안티쿠스 출판사의 박경주 대표는 “최신의 것, 당장 이익이 되는 것만이 미덕인 시대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타라안티쿠스는 최근 《형태와 색채의 양식》이라는 방대한 미술사 책을 번역·출간했다. 1925년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이 책은 로마 산업미술 박물관장을 지낸 줄리오 페라리가 고대 이집트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미술작품의 형태와 색채의 양식을 완벽하게 구현한 자료집이자 미술연구사이다. “한국의 산업디자인계에 근원적인 영감을 주고 싶은 마음에 출간을 결심했다”는 박 대표는 “현대는 디자인의 시대이고 특히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이미지에만 관심을 두고 외국 작품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오거나 모방하기에 급급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인 줄리오 페라리는 ‘예술 작품에서 전

혀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는냐’는 물음을 던집니다. 고대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작가와 작품들이 있었기에 현대의 미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술과 디자인의 ‘원형’과 ‘뿌리’를 찾아서 미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창작 작업에 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와 문명권 망라, 풍부한 수작업 복원 도판

우리가 접하는 미술책의 대부분이 2, 3차 도판을 수록하고 있는데 반해, 《형태와 색채의 양식》은 1차적인 도판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가 수많은 일러스트들과 함께 직접 돌아다니며 원화를 스케치하고 색채를 복원한 미술사료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예술적 영감뿐 아니라 실용적으로 산업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도안을 제공하는 게 이 책의 매력이죠. 단편적인 미술사가 아니라,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과 실용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복원 작업으로 풍부한 도판 자료를 제공하는 게 장점입니다.”

박 대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며 원서의 도판들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보여줬다. 종이의 색은 좀 바랬지만, 세심하게 채색된 원화의 색감은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도판과, 이 도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텍스트 자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고대 이집트, 칼데아·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그리스, 에투루리아, 로마, 아시아》는 고대부터 신고전주의 시대까지의 전 세계 미술을 정리했고, 총 350여 점의 도판을 수록했다. 제2권 《초기 그리스도교, 비잔틴, 아랍》은 고대 로마와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동방의 영향을 받은 비잔틴 미술과 이슬람 미술의 특징을 소개하며 총 300여 점의 도판을 수록했다. 제3권 《이탈리아의 로마네스크와 고딕》은 11~12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미술과 고딕 미술을 다룬다. 총 320여 점의 도판을 수록했다. 제4권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양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르네상스

미술의 힘을 탐색한다. 총 220여 점의 도판을 수록했다.

〈안티쿠스〉의 편집팀장이자 《형태와 색채의 양식》의 편집자인 배경완 팀장은 “이 책이 미술사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말했다. 흔히 로마나 폼페이는 잿빛 돌기둥, 그리스의 신전은 하얀 대리석 돌기둥으로 인식되는데, 이 책의 도판을 보면 실제로는 매우 화려한 원색의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술 작품은 당대의 시대와 사회적 배경 아래서 탄생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유럽 각국이 문화적 위상을 경쟁하던 그 시절,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역량과 인력을 총동원한, 이탈리아 토리노의 문화적 자부심을 집대성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죠. 문양의 색채와 형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원했는데 컬러사진보다 더 정교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 미술의 저력과 저자의 뛰어난 안목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제작상 어려움, 원서 판형·기획의도 살려

《형태와 색채의 양식》은 출간과정의 시행착오와 진통으로 만드는 이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처음엔 “이 책을 과연 누가 사 볼 것이냐를 두고 고민했다”고 돌이켰다. 또, 원본 그대로 출간하려고 했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색보정 작업을 해야 하고 책 크기가 제본 기계와 맞지 않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래서 판형을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판형을 줄이니 원서의 맛이 살아나지 않고 저자의 원래 기획 의도도 살지 못하더군요. 원서의 속지는 묽이지 않은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 장 한 장이 독립적인 완성도를 갖고 있어서 각 장에 담긴 작품이 그 자체로 완결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의 ‘물성’을 그대로 살려서 저자의 의도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번역과 편집 또한 난제였다. 고대 이탈리아어와 미술 전문 용어들, 방대한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도시, 인명 등을 검증하는데 엄청난 품이 들어갔다. 배 팀장은 “일러스트, 세계 미술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라 많은 이들의 공이 들어갔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 놓았다. 총 제작 기간만 13개월이 걸린 이 책은 내용적인 완성도뿐 아니라 외형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원서의 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각 권 겉표지를 끈으로 묶어 속지가 빠지지 않도록 해서 총 4권을 하나의 박스 세



타라안티쿠스의 박경주 대표(좌)와 배경완 편집팀장(우)

트로 낼 계획이다. 표지와 정장을 고급스럽게 해서 소장본으로 500질 한정본만 출간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 책의 독점적인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도판들을 타라안티쿠스 웹 사이트의 라이브러리에 올려서 독자들이 감상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 책이 2,3차로 가공되어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에 돈을 벌 목적이 없으면 이 도판들을 슬라이드 작업해서 낱장으로 파는 게 이득이겠지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 책을 필요한 이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에 만족할 겁니다.”

공공도서관을 통해 현장에 보급되길

현재 프랑스나 미국의 고서점에서 원서가 고가에 팔리고 있는 희귀품일 정도로 가치가 있는 책이지만,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책을 내고 싶다는 목표가 우선이라는 게 박 대표의 입장이다.

“타라안티쿠스의 모기업인 (주)타라티피에스는 오랫동안 출판계에 몸담고 있지만 그동안은 인쇄·종이 회사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책 출간을 계기로 출판을 통한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싶은 게 모기업의 바람이고 의지입니다.”

배 팀장은 상업적인 부분을 많이 포기한 만큼 이 책이 공공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납품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도서관을 통해 이 책을 접한 많은 디자이너들과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